

지역 소식통

고창 주유소협·현대서비스
요소수 기부

전국적으로 요소수 대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고창군에선 긴급·공용차량을 위한 요소수 기부가 잇따르고 있다.

22일 고창군에 따르면 전날(22일) 고창군주유소협회(고창군협회장 허현)에서 고창군에 요소수 100l를 기부했다.

주유소협회는 "요소수 품귀현상으로 쓰레기 수거차량 등 군민들을 위해 운행해야 하는 차량을 위해 기부하게 됐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17일에도 고창읍 소재 현대고창서비스 블루렌즈(대표 이금주)에서도 고창군청을 방문해 요소수 120l를 전달했다.

기부받은 요소수는 고창군 관내 쓰레기수거차, 음식물쓰레기 수거차 등 공용차량에 보급할 예정이다.

유기상 고창군수는 "요소수 대란으로 어려운 시기에 나눔을 실천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며 "군정발전에 큰 힘이 될 것"이라고 감사의 뜻을 전했다. /고창=김영식 기자

부안군 어린이집 연합회
청렴 실천 다짐대회 개최

부안군 어린이집연합회는 지난 22일 계화면에 소재한 큰별 어린이집에서 보육정책 발전방안을 논의하는 간담회와 더불어 청렴 실천 다짐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청렴문화 확산을 위해 5無(불친절, 갑질관행, 부당지시, 금품수수, 향응접대) 운동 실천방법에 대해 서로의 의견을 공유했으며 '나부터 실천하자'는 결의를 다지는 시간도 가졌다.

부안군 어린이집연합회는 청렴문화 확산에 기여하고자 지난 2월 청렴협력체를 구성하고 반부패·청렴활동을 위한 협약을 맺었다.

김명화 부안군 어린이집연합회 총무는 "청렴은 실천의지가 중요하고 청렴한 부안을 만들기 위해 회원들은 물론 보육교직원들과 함께 지속적으로 다양한 활동을 통해 민·관 청렴활동 협력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부안=김석진 기자

지방행정 혁신 우수사례 선정

정읍 '엔젤복지통신원' 제도, 복지 사각지대 해소 인정

정읍시가 추진하고 있는 '엔젤복지통신원' 제도가 행정안전부에서 주관한 2021년 지방행정 혁신 유공 포상에서 주민 생활 우수사례로 선정됐다. 이에 따라 시는 행안부로부터 혁신 챔피언 인증패를 수상했다.

'엔젤복지통신원' 제도는 취약계층을 위한 인적 사회안전망을 구축하고 복지 사각지대 없는 복지정책 실현을 위해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맞춤형 복지정책이다.

복지 통신원은 우리 생활에 근접해 있는 집배원과 전기·가스·수도 검침원 등 1,300여 명으로 위기 상황에 처한 이웃 주민들을 발굴하고 제보해



위기 상황을 해소하는데 든든한 가교 역할을 하고 있다.

이들은 시와 협업으로 2021년 현재 주거환경개선 201건과 물품·생활 지원 17건, 생계지원 29건 서비스 연계 및 정서지원상담 54건 등 총 301건의 위기기구를 발굴·지원하는 성과를

거뒀다.

시는 발굴한 365세대에 대해 신속하게 생계·의료·교육·주거·연료비 등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해 취약계층을 보호하고 있다.

발굴 가구 29세대에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신청 등 맞춤형 긴급 지원을 통한 취약계층의 생활 안정 지원을 도왔다.

또 201세대에 대해서는 수세식 화장실 설치와 도배, 장판, 창호, 보일러 교체 등을 통해 쾌적한 주거환경을 제공했다.

이와 함께, 17세대에 가전, 가구, 육아용품, 생필품 등을 제공하고, 54세대에 복지제도 안내를 담당할 수 있도록 서비스 지원했다.

또한 복합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는 고위험 가구에 대해서는 통합 사례관리 서비스를 통해 각종 위기 상황을 신속히 극복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정읍=김대환 기자



부안군은 설해대책기간(2021년 11월 15일~2022년 3월 15일) 동안 도로설해대책상황실 운영 등 제설 신속대응 체계를 구축해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밝혔다.

"주민 안전 최우선 두고 제설대책을"

부안군, 설해 신속대응 체계 구축 주민 생명·재산 보호 집중

부안군은 설해대책기간(2021년 11월 15일~2022년 3월 15일) 동안 도로설해대책상황실 운영 등 제설 신속대응 체계를 구축해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군은 자원봉사로 운영되는 읍면 트럭타제설기 23대에 대해 보험에 가입해 각종 안전사고에 대비했으며 관내 도로 전 구간의 신속제설을 위해 제설덤프 6대를 입차해 3cm 이상 강설시나 블랙아이스 발생시 제설작업에 투입할 계획이다.

특히 군은 이달 초 소금, 염화칼슘, 제설용액을 정비하고 교반기, 염수탱크 3기를 점검했으며 트럭에 제설기

를 장착하고 모래살포기에 소금, 제설용액을 싣고 시연한 결과 모두 이상 없이 가동됐다.

이와 함께 군은 제설차제로 소금 310톤, 염화칼슘 80톤, 제설용액 120톤, 모래 100㎥를 비치했으며 15톤 덤프(7대), 1톤 트럭(2대), 굴삭기(1대), 모래살포기(5대) 등의 장비를 구비해 상시 대기 중이다.

군 관계자는 "강설시 주민의 안전에 최우선을 두고 제설대책을 추진할 계획"이라며 "보다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제설하기 위해 최선장비와 시설을 보강해 도로교통 편의를 제공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부안=김석진 기자

유기상 고창군수, 국가예산 확보 위해 국회 찾아가

예결위원 등 집중공략... '건의한 현안 예산 꼭 반영토록'

국회의 내년도 예산 심사가 막바지에 다다른 가운데 유기상 고창군수가 지역 현안사업 해결을 위한 국가예산 확보를 위해 총력을 다하고 있다.

23일 유기상 군수는 국회의 찾아 신영대 예산결산위원을 비롯한 국회 예결위원들과 기획재정부 예산실 간부 등 국회·정부 예산심사 관련 핵심인사들을 만났다. 지난 9일에 이어 열흘새 2번째 국회방문으로 설득에 설득을 더하고 있다.

유 군수는 신영대 예산결산위원회 위원을 만난 자리에서 ▲노을, 생태갯벌 플랫폼 조성사업 ▲흥덕·부안 공공하수처리장 증설사업 등 고창군 중점 추진사업의 예산 반영에 적극적 지원과 협조를 요청했다.

이어 국회 예산결산위원회 의원실을 방문해 예산심의 막바지 과정에서 ▲명사십리지구 연안정비사업 ▲고창군 공공하수처리장 증설사업 등 고창군 사업들이 반드시 반영될 수 있도록 지

원을 요청했다.

또 국회에 예산안 최종 반영을 위해서는 기재부 증액공여가 필수적인 만큼 강원구 사회예산심의관과 허승철 국토교통예산과장에게 사업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예산 반영을 요청했다.

유기상 고창군수는 "고창군 삶의 질 향상과 미래 먹거리 확보를 위해 건의한 현안사업 예산이 꼭 반영되도록 하겠다"며 "국회 예산 심사가 마무리되는 12월까지 국가예산 확보를 위해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고창=김영식 기자

정읍시, '희망 2022 나눔 캠페인' 활성화 도모

정읍시는 24일 정읍시청에서 '희망 2022 나눔 캠페인'을 홍보하며 사랑의 열매 달이주기 캠페인을 벌였다.

이날 행사에는 유진섭 시장을 비롯해 전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 박용훈 사무처장과 관계자들이 참여해 시청 직원들과 시민들에게 '사랑의 열매'를 가슴에 달아주며 나눔의 기쁨을 함께했다.

아울러 전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유진섭 시장의 캐리커처와 복지시설 지원 차량 2대, 취약계층을 위한 월동난방비 1,650만원을 정읍시에 전달했다.

되는 '희망 2022 나눔 캠페인'은 나눔, 모두를 위한 사회 백신이라는 주제로 오는 12월 1일부터 1월 31일까지 62일간 진행될 예정이다.

캠페인은 나눔과 기부문화 확산을 통해 불우계층이나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이웃들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매년 개최하고 있다.

나눔에 참여하고자 하는 시민·기관·단체 등은 시청 희망복지팀(530-5482) 또는 읍면동사무소의 성금 접수처 등을 통해 기부에 참여할 수 있다.

성금은 지역 내 저소득층 계층이나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이웃, 취약한

사회복지기관·시설 등 도움이 필요한 곳에 소중히 쓰이게 된다.

박용훈 사무처장은 "코로나19로 어려운 시기에도 불구하고 기부문화 확산을 위해 사랑의 열매 달기 캠페인에 동참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며 "올해도 정읍시민의 뜨겁고 적극적인 지지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유진섭 시장은 "코로나19로 모두 어려운 상황이지만 나눔 실천을 통해 소외되는 사람 없이 따뜻한 정읍시를 만들어 가는 데 동참해 달라"며 "온정어린 손길이 모여 올해도 사랑의 온도탑이 최고치를 달성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정읍=김대환 기자

정읍 출신 서예가 '몽연 김진민' 학술 세미나

정읍 태인 출신인 서예가 '몽연 김진민(1912~1991)'의 생애와 사상을 주제로 한 학술 세미나 '소녀명필, 붓으로 세상을 울리다'가 23일 정읍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이번 세미나는 일제강점기 조선미술 전람회 등 서예 공모전에서 높은 성과를 내며 천재 서예가로 명성을 얻은 김진민의 생애와 작품을 재조명하기 위해 기획됐다.

이날 세미나에는 단계적 일상 회복 1단계에 따라 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한 가운데 사회자와 좌장 발표자를 비롯한 일반시민 30여 명이 참여했다.

또한 참석하지 못한 시민들을 위해 정읍시 공식 유튜브 채널 '정읍 tv'에서 온라인 생중계로 진행하며 시민들의 관심을 끌었다.

세미나는 국사편찬위원회 이용영 위원의 10대에 천재성을 발의한 여류

서예가 김진민의 재조명이라는 주제 발표를 시작으로 전북대학교 김병기 명예교수의 <몽연 김진민 서예 연원 연구> 발표가 진행됐다.

이어 3부 종합토론 시간에는 함토문 화연연구소 서희기 연구위원을 좌장으로 앞서 발표한 연구자들과 정읍산비 문화관 류승훈 서예 강사 전북과대학 학교 유종국 교수가 나서 주제 발표에 관한 추가적인 질의와 답변의 시간을 가졌다.

유진섭 시장은 이번 세미나를 통해 우리 고장 출신인 천재 서예가 김진민 선생의 삶과 업적을 널리 홍보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몽연 김진민 서예가는 1912년 정읍 태인면에서 가산(迦山) 김수근(金水坤)의 무남남녀로 태어났다. /정읍=김대환 기자

지구를 시원하게 식혀주는 에너지 절약 실천 방법

1. 사용하지 않는 전기제품은 플러그에서 뽑기
2. 전기세가 많이 나오는 제품 아껴쓰기
3. 겨울철 실내 온도를 20도로 유지하고 내복 입기
4. 전기 사용량이 많은 시간대에는 전기 사용량을 줄이기

▶ 전주매일 에너지캠페인